

보 도 자 료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 홍보팀
(팀장 이지영, 담당 강민구)
Tel : 032-770-8630, 8631
Fax : 032-770-8709
- ◆ 2017. 11. 15.(수) 배포
- ◆ 총 3쪽 (본문 2쪽, 첨부 1쪽)

“극지과학연구로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나선다”

극지연구소,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세미나 개최

- 극지연구소 (소장 윤호일)가 11월 15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2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3)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극지과학연구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안’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부간 기후변화협약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지난해 기후변화 문제에서 남극과 북극의 중요성을 반영해 특별보고서의 주제를 선정한 것에 발맞추어, 세미나는 국제사회에 우리의 성과와 역할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된다.
- 국내외 전문가들은 남극과 북극의 빙권 변화가 해수면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 과학과 정책이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잠길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Tuvalu)의 ‘에넬레 소포앙아 총리’가 세미나의 기조연설자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면서, 총회 참가국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가 간 회의로 1995년 이후 매년 개최됐으며, 3차와 21차 총회 때 각각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정이 채택된 바 있다. 이번 23차 총회는 피지(Fiji)가 의장국을 맡아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 윤호일 소장은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그 원인에 대한 과학연구 결과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관심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극지연구가 국제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극지연구소

첨부1.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3) 국제세미나 개요

극지의 한국, 미래의 도전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극지연구소 이지영 홍보팀장 (☎ 032-770-8630) 또는 강민구 행정원 (☎ 032-770-86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 부대행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
 변화와 해양 및 빙권에 관한 특별보고서 준비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일시: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13:00-15:00

장소: 한국 파빌리온관

주최: 극지연구소



2017년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3)가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에서 2017년 11월 6-17일간 개최됩니다. 이번 COP23은 피지(Fiji)공화국이 의장국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아래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태평양 도서국들의 중요한 역할과 과학성과의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극지연구소는 11월 15일 한국 파빌리온관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와 해양 및 빙권에 관한 특별보고서 준비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주제로 부대행사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세미나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접목하여 남극과 북극해빙이 해수면상승에 미치는 영향 및 적응 정책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극지 및 기후변화 연구자들, 정책입안가 및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기업 대표분 등 각계 전문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일정

- 13:00-13:30 **개회사**
 원효일 소장 (극지연구소)
환영사
 윤종수 원장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UNOSD)
 남광희 원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기조연설
 에벨레 스포아가 총리 (투발루)
- 13:30-14:20 **남극 빙상이 글로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원상 박사 (극지연구소 해수면 변동 예측 사업단)
극지 빙상 - 현황과 미래
 안젤리카 험버트 교수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극지연구소, AWI)
변화하는 북극 지역의 사회-경제적 영향
 마크 로렌스 교수 (독일 지속가능성 연구소, IASS)
- 14:20-15:00 **폐널 토론**
 이창환 사무관 (환경부 지구환경협력과)
 손성환 인천시 GCF 자문대사
 정서용 교수 (고려대학교)
 유승직 교수 (숙명여자대학교)